

ECONOMY

2025년 3월 4일 화요일

한전, 작년 영업이익 '8조3000억'...4년 만에 흑자

이달부터 광양항-아프리카 항로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투입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달 초부터 세계 1위 컨테이너해운사인 MSC가 광양항-아프리카항로에 세계 최대인 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투입, 운항한다고 3일 밝혔다.

광양항-아프리카 항로는 지난 2018년 신규 기항 때 1만3000TEU급으로 출발해 그동안 1만6000TEU급으로 확대, 운항해 왔으나 이번에 세계 최대급인 2만4000TEU급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아프리카항로에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운항됨으로써 광양항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불동량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MSC딜레타(DILETTA)호가 광양항을 출항해 님보-상하이-난사-서코우-봉때우-싱가포르-비지남(신규기항지) 등을 거쳐 서아프리카의 테마와 로메 등으로 운항한다.

이후에도 MSC 투루키에(TURKIYE)호(2만4346TEU)와 MSC 테사(TESSA)호(2만4116TEU)가 순차적으로 운항하게 된다.

항만공사는 선박 대형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자동화 컨테이너부두를 구축해 최첨단 항만, 초대형선박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매출액 94조13억...주당 214원 배당 재개 4차례 요금 인상·연료가격 안정화 등 영향

한국전력이 고강도 지구노력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지난해 8조3000억 영업이익을 내며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3일 한전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결과, 매출액 94조13억원, 영업비용 85조6524억원, 영업이익 8조3489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부터 이어온 4차례 요금조정으

로 전기판매수익이 증가한 한편, 연료가격 안정화 및 지구노력 이행으로 영업비용은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은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기판매수의 판매량이 0.7% 증가했고, 판매대가는 전년 대비 6.6% 상

승해 5조9350억원 증가했다.

자회사 연료비는 4조4405억원 감소, 민간발전사 구입전력비는 3조6444억원 감소했다. 원전과 LNG, 신재생 등의 발전량과 구입량은 증가했으며, 석탄화력은 자회사 발전량과 민간 구입량 모두 감소했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가격 하락과 함께 설비운영 효율화를 위한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등 시장제도 개선에 따라 구입전력비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타 영업비용은 발전 및 송배전설비

신규 자산 증가 및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9762억원 증가했다.

한전은 별도 공시에서 주당 214원을 배당한다고 밝혔다. 시가 배당률은 1.0%, 총배당액은 1374억원이다.

한전은 "재무 위기에 따른 3년간의 장기간 무배당 시기에도 한전을 믿고 투자해준 투자자에 대해 작은 규모지만 이익을 환원하는 주주 가치 제고가 필요했다"며 "이번 배당은 전력망 확충 등에 필요한 필수 투자 재원을 고려한 최소 수준의 배당"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국민께 약속드린 재정 건전화 계획' 및 '고강도 지구노력'을 노사가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설비점검기준 개선 등 업무 전반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노사협의를 통해 정부경정령과 성과급 및 임금 반납, 희망퇴직, 직원 복지축소를 단행했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에도 2021년 이후 누적 영업적자가 34조7000억원으로,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왼쪽부터) 이정호 광주FC 감독, 고병일 광주은행장,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가 광주FC적금 1호 가입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광주FC 적금' 출시...8월까지 판매

K리그 시즌 개막 맞춰 응원 이정호 감독·노동일 대표 1호 유니폼·사인볼 등 굿즈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2025 K리그 시즌 개막을 축하하며 광주FC의 선전을 기원하는 '광주FC적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FC의 메인스폰서인 광주은행은 '광주FC 응원'이라는 테마를 가진 적금을 선보이며 지역민들의 응원과 관심을 불러 모을 예정이다. 상품의 취지를 살려 이정호 감독과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가 1

호 가입자로 나섰다.

오는 8월 31일까지 판매하는 1년제 상품으로, 가입금액은 5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기본 금리는 정액적립식 연 2.9% (자유적립식 연 2.7%) 이고, 우대금리 최대 연 0.9%p (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3.8% (자유적립식 연 3.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2월 28일 기준)

우대금리 조건은 △광주FC K리그1 성적에 따른 우대금리 최고 연 0.3%p(1~2위 연 0.3%p, 3~4위 연 0.2%p, 5~6위 연 0.1%p) △광주FC 홈구장 방문 인증 횟수에 따른 우대금리 최고 연 0.4%p(1회 연 0.2%p, 2회 연 0.4%p) △광주FC체르카

드 10만원 이상 사용 시 연 0.2%p이다.

광주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5월 31일까지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최소 20만원 이상(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가입하고, 이벤트 기간 동안 가입상품 유지고객에 한해 추첨을 통해 광주FC 유니폼 등 경품을 지급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올해에도 K리그 1 시즌에 맞춰 지역민 및 축구팬들과 공감대를 나누고자 스포츠 마케팅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 광주은행은 금융을 넘어 지역 스포츠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며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더욱 특별하고 품격 있게, 잊지 못할 순간으로 -

HOTEL 아트하임

VIP CLUB 무기명회원 모집

상담문의 062.415.7330

혜택	Vip 1천만 (3년)	Vip 4백만 (1년)
숙박	연40박 (한시적), 추가 숙박시 주중 30% 주말 20%	
조식	숙박시 조식 2인 무료(연 36매) 추가 증정	
사우나	무료 사용	
피트니스	무료 사용	
커피숍	커피 50% 할인, 기타음료 20% 할인	
골프대회	그린피 무료, 시상식, 연 1회	
컨퍼런스룸	연 10회, 1회 타임 3시간 무료 사용	
연회장	10% 할인	
웰니스프로그램	전문의 초청 건강세미나 연 2회	
광남일보	기업탐방 및 오피니언 리더 특집기사 연 2회 전문 이미지 광고 광남아카데미 초청 강연 연 10회 (석식제공, 사진예약)	
광주버스 방송	광주시내버스 내부 모니터(버스 1대당 모니터 2대) 20대 12개월 / 50대 4개월 / 100대 2개월	
	3년 3회 제공 (4,800만원 상당)	1년 1회 제공 (1,600만원 상당)
월간지전라도인	3년 무료구독	1년 무료구독

(주) 호텔아트하임 멤버십 클럽은 지역경제지 "광남일보" 종합광고대행사 "에드하임"이 함께합니다.

★ 대면회점(150명) / 소면회점(30명) /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운영

(주) 호텔아트하임(광남)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예약문의 062)236-5881

금호타이어, 호주 인기 럭비팀 후원

'캔터베리뱅크스타운 불독스' 홈경기장 버스 운영 등

금호타이어는 호주 최대 인기 스포츠인 NRL 럭비팀 '캔터베리뱅크스타운 불독스'와 후원 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내년까지 불독스의 홈경기장인 시드니 아코르 스타디움을 비롯해 감독 유니폼 등에 로고를 노출한다. 경기장 내에는 금호타이어 버스를 설치해 신제품 등을 전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1988년 호주 법인을 설립했으며, 현재 호주 타이어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2위를 기록 중이다. 주요 리테일 채널인 '타이어파워', '밥제인' 및 타이어 특화 유통점인 '금호 플래티넘' 등을 통한 활발한 영업 활동을 비롯해 공격적인 현지 마케팅과 물류 시스템 최적화, 소비자 대상 프로모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호주 시장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NRL 팀 후원 뿐만 아니라 호주 국가대표 럭비팀인 '하키 오스트레일리아' 후원도 실시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상의 비즈니스 라운지, 수도권 거점 호응 작년 2만4983명 이용 전년비 20.8% ↑...리모델링 예정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인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가 지역 기업들의 수도권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3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라운지 이용객 수는 총 2만4983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0.8% 증가했다. 또 회의실 이용건수는 1855건으로 16.8% 증가하는 등 라운지 이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역 4층에 위치한 라운지는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3개 광역자치체와 지역 9개 상공회의소가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공간으로, 2013년 개소 이후 지역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더욱 원활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라운지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갖춘 회의실 3곳과 사무·휴게 공간, 업무용 PC, 복합기 등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해당 시설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단,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다. 회의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예약을 권장하며, 예약 및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gj-

in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 관련 문의는 대표 전화(02-796-0007)로 하면 된다.

광주상의는 올해 라운지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고, 기업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휴게 공간을 개선, 더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난해 설치한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해 지역 기업들의 제품과 호남지역 주요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최재서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만 해도 월평균 2000명 이상이 수도권에서 미팅이나 계약 협상을 위해 라운지를 찾고 있다"며 "라운지가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지역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넓히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 애니 캐릭터 상품, 교보문고 진출

(주)핑고엔터테인먼트 사사&마일로 인형·우산 판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역 애니메이션 제작사 (주)핑고엔터테인먼트(대표 신희석)의 '사사&마일로', '뽕이키페' 캐릭터 상품이 최근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핑고엔터테인먼트는 2024 CG활용프로젝트 제작지원사업의 콘텐츠IP 유통 사업 참여기업으로 자사 애니메이션 IP를 활용한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입점을 통해 '사사&마일로' 브랜드 인형, 어린이용 우산을 비롯해 파규어 키링, 볼펜, 메모지, 손목 쿠션 등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문구와 소품을 판매한다.

핑고엔터테인먼트는 교보문고 광화문점 판매를 시작으로 다른 지점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번 입점 상품들은 네이버스토어와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등 온라인 마켓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